

CREATION

TRUTH

ASSOCIATION FOR CREATION TRUTH NEWSLETTER

Volume 21 Number 09 **09** 2013



창세기 1장(5)

빛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그 빛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창 1:3, 4)

‘빛’이란 무엇인가? 이는 과학자에게 참으로 어려운 질문이다. 우리가 빛을 인식하지만 아직 누구도 빛을 정확히 정의하지 못한다. 일반적으로 파동적 성질과 입자적 성질을 가졌다는 물리학적 표현을 한다. 아마도 이 이상의 표현을 하기 힘들기 때문일 것이다. 눈으로 볼 수 있는 가시광선은 3900-7700Å(옹스트롬=10⁻⁸cm) 파장의 범위인데 그 파장의 단파부터 보남파초노주빨 무지개 색으로 나뉘어진다. 이 모든 파장의 가시광선이 한꺼번에 와 닿을 때 색깔을 구분할 수 없으므로 백색광이라고 부른다.

반면에 가시광선의 영역을 벗어나면 사람은 그 빛을 감지할 수 없다. 이 보이지 않는 빛은 가시광선보다 짧은 파장의 자외선, X선, 감마선 등이며, 긴 파장으로서는 적외선, 마이크로파, 전파 등에 해당한다. 이런 빛은 우리에게 보이지 않지만 일상생활에서 이들이 존재한다는 것을 쉽게 알 수는 있다. 자외선 차단 크림을 바른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이 바닷가에서 하루를 지낸 후에 그 피부의 그을린 차이를 보고 자외선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맨 눈으로는 보이지 않지만 병원에서 X-선 촬영을 하고 필름에 드러난 뼈들을 보며 그 존재를 알 수 있다. 가시광선보다 파장이 긴 적외선은 열로서 다가오는데 화로에서 따뜻하게 느끼게 하는 복사 에너지가 바로 적외선이다. 열은 보이지 않지만 느낄 수 있다. 열을 발하는 물체가 붉은색을 띠는 것은 가시광선의 가장 긴 파장인 붉은색과 적외선의 파장이 겹쳐서 보이기 때문이다. 또한 더 긴 파장을 통해 우리는 라디오를 수신할 수 있다.

그러면 빛이란 무엇인가? 그 정의는 내리기 어렵지만 과학자들은 빛이 전자기적 “에너지”의 모든 영역이라는 점을 동의한다. 앞서 언급했듯이 빛은 가시광선뿐 아니라, 자외선, X선, 적외선, 전파를 포함하며, 더 나아가 열, 소리, 전기, 자기, 분자상호운동의 영역에까지 해당하는 포괄적인 에너지다. 그러므로 빛은 에너지의 가장 기본이며 전자기적인 모든 형태를 활성화 시키는데 필수적이다. 그러므로 빛을 창조하시는 모습을 보며 하나님께서 1절에 시간(태초)—공간(하늘)—물질(지구)라는 차원들을 창조하신 후에 이들을 활성화시킴과 동시에 에너지화시키는 것을 볼 수 있다. 이 모두가 첫째 날 함께 이루어졌다는 것은 오늘날 과학으로 접근하더라도 손을 들 수 밖에 없는 놀라운 과정이다.

가시광선으로 다시 돌아와보자. 우리가 물체를 눈으로 보고 있다는 것은 실제로 반사된 빛을 인식하고 있는 것이다. 예를 들면 노란색 색종이를 보고 있다는 것은 그 색종이가 노란색을 비추는 것이 아니라 다른 색은 흡수하고 노란색의 파장만을 반사하기 때문이다. 가시광선의 영역에서 벗어난 것은 인간의 눈만으로 확인할 수 없다. 그래서 우리는 망원경을 사용한다. 그러나 렌즈 망원경이 어느 정도 고배율이 되면 상이 너무 어두워서 확인하는데 한계에 부딪힌다. 그러므로 천문학자들은 아주 멀리 떨어진 별들을 관찰할 때 이 한계를 알기 때문에 자외선, 적외선, 원적외선, 전파 망원경 등 다양한 우주망원경을 사용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런 특수한 망원경이라고 할지라도 각기 장단점과 한계를 갖고 있다. 즉 이 광대한 우주를 보기에는 아무리 발달된 도구라도 아주 제한적이란 의미다.

이는 단지 멀리 있는 것을 관찰할 때만 적용되는 말이 아니다. 아주 작은 것을 관찰할 때도 마찬가지다. 그래서 우리는 현미경을 사용한다. 그러나 렌즈현미경은 어느 정도 고배율이 되면 상이 너무 어두워서 한계에 부딪힌다. 그러므로 과학자들은 더 작은 물질의 확인을 위해서 전자현미경과 같은 특수한 현미경을 사

용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런 특수한 도구들을 사용한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관찰할 수 있는 것은 아주 제한적이라는 것은 아주 분명하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본 것만 믿는다는 말은 결코 바른 말이 아닐 것이다. 또한 내가 본 것이 모두라고 생각하는 것도 큰 오해다. 오히려 거꾸로다 믿음으로 본다는 말이 더 맞는 말이다. 그러므로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히 11:1)란 말 씀은 우리의 한계를 지적한 정확한 표현이 아닐 수 없다. 물론 여기서 믿음은 바른 믿음을 의미한다. 즉 바른 믿음이란 성경을 그대로 믿는 믿음이다. 성경에 대한 전적인 믿음을 갖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피조물에 행하신 그 증거들이 보이는 것이다. 첫째 날 하나님께서 시간-공간-물질 그리고 여기에 에너지화시키는 빛을 보며 성경에 대한 자신의 믿음의 증거를 보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우리만 보는 것이 아니다.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도 ‘보신다!’ 하필이면 이 빛을 창조하신 다음에 “보시기에 좋았더라”고 하셨다. 보이게 하는 매개체인 빛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께서 보신다는 표현을 처음 사용하신 것이다. 마치 우리는 보는 한계가 있지만 자신이 보는데 한계가 없다는 것을 비교하시는 것 같지 않은가? 그렇다 우리는 빛 때문에 보지만 하나님은 빛 때문에 보는 분이 아니다. 하나님은 빛이 없어도 보는 분이다. 빛을 창조하신 분이기 때문이다. 이 빛은 자신이 창조하신 피조물을 우리에게 보이기 위한 수단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빛에 제한 받으실 리 없다.

그러므로 다윗이 찬양한 하나님은 정확한 표현이 아닌가?

“주에게는 흑암이 숨기지 못하며 밤이 낮과 같이 비추이나니 주에게는 흑암과 빛이 같음 이이다”(시 139:12)

모든 것을 보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두려움과 함께 그분에 대한 신뢰를 갖는다.



이재만 부회장
지질학, 과학교육학



창세기 1장(6)

“태양이 없는데
어떻게 빛이 존재해요?”

창세기를 보면 하나님께서 첫째 날 빛을 창조하셨고, 넷째 날에서야 큰 광명, 작은 광명, 그리고 별들을 창조하셨다는 것을 발견한다. 이때 태양이 빛을 내보내기 때문에 빛보다 먼저 창조되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등장하는 질문이다.

그러나 간단히 접근해 보아도 빛이 태양보다 먼저 창조되었다는 기록이 옳다는 것을 쉽게 발견할 수 있다. 엄밀히 빛과 태양은 같은 것이 아니다. 실제로 빛은 분자운동을 활성화시키는 전자기적 모든 에너지의 기본이다. 한편 태양은 수소

제 4차 **신학생** 창조과학탐사 모집

날짜: 2013년 **10월 28-31일**(월-목 4일간)

출발: LA (정확한 장소는 추후 공고)

경유지: 그랜드캐년, 글렌캐년 댐, 브라이스캐년, 자이언캐년

인도: 이재만 (창조과학선교회 부회장)

참가비: 1인당 \$150 (창조과학선교회가 \$320 보조)

참가신청 자격: 대학원 과정 이상의 신학생 혹은 배우자(자녀는 참가할 수 없음)

참가신청과 참가결정:

본인 소개와 참가 희망 동기를 적은 소정의 신청서를 9월 15일까지 이메일로 제출하시면 본 선교회가 참석 가능 여부를 결정하여 알려 드립니다. (신청서 양식은 창조과학선교회에 문의 바람)

M Div. 과정을 마친 분들께 우선권을 드립니다.

와 헬륨으로 구성되어있는 물질이다. 그러므로 빛이 이미 존재하지 않았다면 태양이 자신의 역할을 하는데 심각한 문제가 있을 것이다. 그런 면에서 성경이 창조될 때부터 빛과 별들을 구분해서 취급하는 것은 주목할 만하다.

첫째 날 창조된 빛은 히브리어로 오르(ore)다. 반면에 넷째 날의 광명은 마우오르(maw ore)다. 원어 그대로 보자면 오르는 지금까지 말했던 빛(light)이다. 반면에 마우오르는 빛을 주는 장치(light giver)다. 글자 뜻 그대로 말하자면 첫째 날에는 에너지의 근본 되는 빛을 창조하셨고, 넷째 날에는 그 에너지를 발광시키는 장치를 창조하신 것이다. 개역성경에는 '광명체'로 분명히 번역하였다.

여기서 간단한 예가 도움이 될 것이다. 전기가 먼저일까? 아니면 백열전구가 먼저일까? 물어보나마나 전기가 먼저이다. 백열전구는 그 전기 에너지를 빛으로 전환시키는 장치다. 그러므로 전기가 백열전구보다 먼저이듯이 빛이 태양보다 먼저 창조된 것이 훨씬 타당하다. 만약 이 순서가 바뀐다면 성경은 과학자들에게 더욱 더 공격을 받을 것이다. 빛을 먼저 만드시며 다음에 광명체를 염두에 두신 하나님. 그분의 전능함과 지혜를 누가 따라 갈까? 우리는 읽으며 그냥 끄덕거릴 뿐이다.

시편 기자도 창세기 1장과 같이 빛과 해를 따로 언급한 것은 흥미롭다.

“낮도 주의 것이요 밤도 주의 것이라 주께서 빛과 해를 마련하셨으며” (시편 74:16). 

이재만(창조과학선교회 부회장)

제 5기 ITCM 훈련생 모집

창조사역 집중훈련(Intensive Training for Creation Ministry; ITCM)
과정은 창조과학 사역을 체계적으로 배우거나 전문 사역자가 되기를 원하는 인재들을 위해 마련된 집중 훈련 프로그램입니다. 성경-과학-사역 세 부분의 균형 잡힌 성장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성경공부와 창조과학 도서 읽기 뿐 아니라, 창조과학 탐사여행과 세미나 등 사역 현장에서 직접 배우고 훈련하는 것으로 이루어집니다.

일시 : 2013년 12월 29일 - 2014년 2월 21일 (8주간)

모집 인원 : 7명

지원자 : 대학 2년 이상 수료자 (과학 전공자 우선)

참가비 : 식비 \$1200.00 (식비 이외의 모든 교육비는 창조과학선교회 제공)

지원 문의 : 최우성 박사(mailforwschoi@gmail.com)



창조과학탐사

지난 한 달간 창조과학탐사는 8번이 진행되었습니다. 산타모니카 온누리교회(담임목사 김재석), 유학생 & 신학생(후원 서빙고 & 얼바인 온누리교회), 동산고등학교(교장 김종배), 나성순복음교회 후원 아시아선교사(담임목사 진유철), 부산 영도 팀, 지구촌교회(담임목사 조봉희), YM Diaspora(리더목사 박진규), 그리고 EM 탐사인 커피브레이크 자녀(담담 이명숙) 등이 참가하였습니다.



산타모니카 온누리교회



유학생 & 신학생



동산고등학교



LA 순복음교회 아시아 선교사



YM Diaspora



각 참가자들은 하나님께서 성경대로 행하신 사실을 확신했을 뿐 아니라, 이 시대에 다음 세대에 신앙을 전수하는데 창조과학이 빼놓을 수 없는 도구라는 것을 공감했습니다. 참가팀들에 따라 젊은 세대를 어떻게 이 창조탐사에 참가시킬 것인가 구체적인 계획을 하기도 했습니다. 위의 참가팀들 중에 유학생 & 신학생, 동산고등학교, 지구촌교회, 커피브레이크 자녀(EM)는 모두가 학생들로 구성된 팀입니다. 이들은 부모님들께서 먼저 다녀오신 후 이루어진 열매들입니다. 다음 세대 참석자들이 어떤 변화를 보였는지는 창조과학선교회 홈페이지의 간증 코너에 방문하시면 알 수 있습니다.

저희 창조탐사 인도자들이나, 함께 참석한 부모님들이나 선생님들은 프로그램 내내 분위기와 마지막 날 간증 시간을 통해 이들이 창조탐사에 참석하기 이전과 이후의 확연히 달라진 모습을 확인하며 놀랍니다. 참석 이전에는 대부분의 학생들은 창세기를 '전설과 같은 꾸며낸 이야기'로 알고 있었으며, 참석 마지막 날에는 창세기가 '역사적 사실'이라는 점에 놀라고 확신으로 바뀌었다는 간증을 합니다. 학교에서 진화론을 배울 때 어떻게 하며 친구들에게도 이 사실을 이야기 해 주고 싶어합니다.

창조과학탐사가 다음 세대 신앙 전수에 귀한 역할을 담당하는 것에 하나님께 감사 드리고, 이를 위해 후원과 수고를 주신 교회 리더와 부모님들께 감사 드립니다.



지구촌교회



ACT 새 홈페이지



EM Coffee Break



YouTube 동영상

시카고 지역 창조과학학교

제 14기 창조과학학교(9/10 - 11/12, 매주 화요일, 시카고 노스 필드장로교회)와 제 15기 창조과학학교(9/11 - 11/13, 매주 수요일, 시카고 한미장로교회)가 같은 시기에 개강합니다. 많은 참석과 은혜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참가 문의는 630-400-6114 이동용 박사에게 하시면 됩니다.

신학생을 위한 창조과학탐사

2013년 10월 28-31일(월-목) 4일간 신학생을 위한 창조과학탐사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재만 창조과학선교회 부회장의 인도로 그랜드캐년, 브라이스캐년, 자이언캐년 등 서부 3대 캐년을 방문하게 됩니다.

참가신청 자격은 대학원과정 이상의 신학생 혹은 배우자이며 자녀는 참가할 수 없습니다.

주위 알고 계시는 신학생들에게 알려 주시고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4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 5기 ITCM 훈련생 모집

2013년 12월 29일부터 2014년 2월 21일까지 창조사역 집중 훈련 (Intensive Training for Creation Ministry; ITCM) 과정이 시작 됩니다. 창조과학 사역을 체계적으로 배우거나 전문 사역자가 되기를 원하는 인재들을 위해 마련된 집중 훈련 프로그램입니다. 성경-과학-사역 세 부분의 균형 잡힌 성장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성경공부와 창조과학 도서 읽기뿐 아니라, 창조과



학 탐사여행과 세미나 등 사역 현장에서 직접 배우고 훈련하는 것으로 이루어집니다.
추천해 주시고 후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집 인원은 총 7명이며 문의는 최우성 박사(mailforwfschoi@gmail.com)에게 하시기 바랍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5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 홈페이지

새로운 홈페이지가 만들어 졌습니다. 방문해 주시고 많이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조과학선교회의 공식 YouTube 게시물

창조과학선교회의 첫 번째 공식 YouTube 게시물이 지난 달에 게시 되었습니다. 웹 주소: <http://www.youtube.com/watch?v=-AAAnTH-dqk>

제목: 종의 기원 part1

이 작품을 위해 헌신하게 된 윤선하 자매가 지난 2월부터 함께 사역하고 있습니다. 많은 노력과 시간이 들어 간 작품입니다. 많이 사용하시고 주위에 알려 주셔서 하나님의 창조 진리가 널리 전해지도록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계속 만들어질 작품 제작과 전달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Olmstead Point에서 부산 영도 팀



올 여름에 아주 신나는 DVD가 출시 되었다. “Evolution vs. God”이란 제목의 DVD인데 다음과 같은 자막으로 시작한다.

“신앙은 훌륭한 핑계, 증거에 대해 생각하거나 평가하기를 거부하게 하는 좋은 이유이다” 인본주의자이며 무신론자이며 진화론자의 리더로 가장 널리 알려져 있는 영국 옥스퍼드 대학교의 Richard Dawkins 교수가 한 말이다. 크리스천들이 믿음 때문에 진화의 증거들을 생각도 안하고 제대로 평가를 하지 않고 거부해 버린다는 말이다.

이DVD는 무신론자와 진화론자들을 인터뷰 한 아주 박진감 넘치는 작품이다. 그들 중에는 유명 대학의 교수들도 있고 학생들도 있다. 인터뷰 초반은 스스로 무신론자와 진화론자임을 확인한다. 다윈의 진화론은 공룡이 새로, 유인원이 사람으로, 양서 포유 동물이 고래로 진화했다는 등의 주장이다. 그 사람들은 이 진화가 사실이니까, 전문가들이 그렇게 말하니까, 과학이 그렇게 말하니까, 논리적이므로 진화를 믿는다고 말한다.

다음 장면은 과학에 대한 사이언스 데일리의 정의: “과학적인 방법은 관찰과 실험으로 얻은 데이터에 근거한다”는 자막을 보여 주고 진화론을 믿고 있는 그 교수와 학생들에게 믿음이 아니라 관찰을 통해서 다윈이 주장 했던 진화의 증거 즉 종류(kind)가 변하는 대진화(macro-evolution)의 증거를 단 한 가지만이라도 말 해 달라고 요구한다. 그런데 그 교수들도 학생들도 그 누구도 관찰 된 진화의 증거를 단 한 가지도 말하지 못한다. 그들이 예로 든 진화의 증거들은 모두 다 같은 종류(same kind) 내의 변이(variation)만을 이야기하고 있다. 핀치새 안에서 새로운 종의 핀치가 생겨난 변화나 같은 물고기 안에서 새로운 종(species)의 물고기가 생겨 난 변화만을 이야기 할 뿐 종류를 뛰어 넘는 변화(=진화)의 증거는 단 하나도 나오지 않았다. (변이와 진화에 대한 좀 더 상세

한 설명은 창조과학선교회가 최근 제작한 동영상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You Tube에서 “중의 기원 part1”을 찾아 보시거나 다음 주소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http://www.youtube.com/watch?v=-AAAnTH-dqk>

이 DVD는 진화가 관찰과 실험으로 얻은 지식이 아니라 믿음이었음을 진화론자들의 입으로 이구동성으로 생생하게 말해 주고 있다. 진화론자들도 역시 도킨스 교수의 말대로 그들의 믿음 때문에 증거들에 대해 제대로 생각을 해 보지 않았고 제대로 평가하지 않고 진화를 맹목적으로 믿고 있었음을 생생하게 보여 주고 있다. 이 DVD는 진화론 때문에 하나님께서 종류대로 창조 하셨다는 성경의 말씀을 거부할 과학적인 이유가 전혀 없음을 보여 주고 있는 것이다. (사실 과학적으로 논리적으로 접근해 보면 진화론은 과학 법칙들을 위반하는 가설이지만 창조론은 과학 법칙들과 잘 조화가 되기 때문에 창조가 사실임을 인정할 수 있다.)

진화란 무엇인가? 좁은 의미에서는 물고기가 양서류로 되는 것과 같은 변화를 말하는 것이 맞다. 그러나 진화론은 여기에서 그치지 않는다. 진화론은 현재 존재하는 모든 것들의 지나온 과거 역사를 설명하는 것이다. 사람을 비롯하여 모든 동식물과 환경과 지구와 우주를 망라하는 모든 것들에 대한 역사가 창조자 없이 저절로 이루어져 왔다는 것이 진화론이다. 그러므로 진화의 반대는 창조나 하나님이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태초부터 지금까지의 모든 역사를 부정하는 것이다. 진화의 반대는 바로 성경인 것이다. 그래서 진화론이 들어 가는 곳에는 어김없이 교회가 없어지는 것이다. 



최우성 박사
생리학



당신이
하나님께
결코 듣지 않기를
바라는 메시지:

**‘내가
그렇게
말했다!’**



게놈(Genome)의 3차원 구조

과거에 유전학자들은 한 줄로 암호화된(linear-coded) 유전 정보가 복제되고 해독되고 발현되는 정교한 과정들을 이해하려고 많은 노력을 해왔다. 그러나 지금은 유전자의 비선형적(공간적) 영향이 밝혀졌기 때문에 세포 구조에 대한 전혀 새로운 차원의 이해가 필요하게 되었다.

영어로 된 문장은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한 줄로 정보가 나열되어 있다. DNA 역시 이와 유사한 방식으로 정보를 담고 있지만 DNA의 경우는 양쪽 방향 모두에 정보가 나열되어 있다. DNA는 두 가닥으로 이루어진 분자구조이기 때문에 두 가닥 모두에 정보를 담을 수 있는 것이다. 한 문장과 그의 반대방향의 상보적인 문장이 또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다. 게다가 세포 내부 장치들은 필요에 따라 일정 부분의 DNA 정보를 합치거나 분리하며 매우 역동적으로 움직이고 있다.

사람 세포 한 개에 들어 있는 46개 염색체 모두를 한 줄로 펴서 잇는다면 DNA 길이는 약 1.8m 가 되는데 사람 몸에는 이런 세포가 수 조개나 있다. 사람만 유일하게 거의 보이지 않을 만큼 작은 글씨로 정보를 한 방향으로 기록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정보를 양방향으로 읽힐 수 있는 문장으로 기록하는 것은 초월적인 지성을 가진 존재만 가능할 것이다.

시드니의 한 의학연구소(Garvan Institute of Medical Research) 소속으로 3차원



사람 세포 한 개에 들어 있는 46개 염색체 모듈을 한 줄로 펴서
 이었다면 DNA 길이는 약 1.8 m 가 되는데 사람 몸에는 이런 세포가
 수 조개나 있다. 사람만 유일하게 거의 보이지 않을 만큼
 작은 글씨로 정보를 한 방향으로 기록할 수 있을 것이다. 그
 러나 정보를 양방향으로 읽힐 수 있는 문장으로 기록하는 것은
 초월적인 지성을 가진 존재만 가능할 것이다.

유전체 분석 연구의 리더였던, 팀 머서(Tim Mercer)는 이렇게 이야기했다.

“과거 몇 년 동안 우리는 유전물질의 접힘 구조(folding)가 어떻게 유전자 발현
 과 조절을 결정하는지를 보려고 연구해왔다. 특정 유전자와 특정 엑손(exon, 유
 전정보가 아미노산으로 표현되는 부분)들은 접힘 구조에 의해 연구하기가 매우
 쉬운 곳에 위치한다... 이 연구의 결과는 유전물질의 3차원 구조가 유전자의 스
 플라이싱(splicing, 유전정보에서 필요 없는 부분의 정보를 제거하는 과정)에 영
 향을 미칠 수 있다는 사실을 처음으로 보여주었다.”

엑손은 유전자 안에 포함되어 단백질을 만들어내는 정보를 담고 있는 부분이
 다. 이 부분이 접힘 구조에 의해 바깥으로 노출되면 특정 정보가 세포 내 단백질
 에 의해 전달되게 된다. 접힘 구조의 안쪽에 있는 정보들은 노출되지 못해 정보
 가 전달되지 않게 되는데, 그때에는 아마도 그 정보가 불필요하기 때문일 것이
 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 접힘 구조가 만들어질까에 대해서는 여전히 미지수이
 다.

DNA의 3차원 배열구조가 세포의 유전자 해독과정에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
 결과는 세포 내부의 세부적인 작용을 연구하는 사람들을 더욱 복잡하게 만든다.
 그러나 세포가 어떻게 생겨났는지를 이해하려고 하는 사람들에게는 큰 해답을
 안겨준다. 이것은 초지성적인 분의 신적인 작품이라는 사실의 강력한 증거가 되
 기 때문이다. “천지간에 어떤 신이 능히 주께서 행하신 일 곧 주의 큰 능력으로
 행하신 일 같이 행할 수 있으리이까?(신 3:24) 

Brian Thomas, New Twist in DNA Turns Heads, Genes. ICR, Article posted on July 5,
 2013. / 번역: 조희천

ANC 온누리교회 EM & KM 가족 창조과학 탐사 5/25-27, 2013

I learned ... dinosaurs went to Noah's Ark (*Shelly Oh, 2nd grade*) and to read the Bible (*Julia Chin, 3rd grade*) and there is proof the Bible is real history. I learned to believe in God (*Audrey Ouh, 4th grade*) and the Earth is about 6,000 to 7,000 years old (*Eugene Park, 5th grade*) and evolution is wrong (*Nathan Ouh, 6th grade*).

This trip was amazing because we got to learn how powerful our God is and ... and made new friends. -*Sam Lim, 7th grade*.

I can't express how grateful I am to have been on this trip. I do have a personal relationship with Jesus Christ and ... I always thought that it was unnecessary to think about such things, honestly speaking. However, ... during this trip, it was pointed out that "if you use the Bible as your starting point, everything makes sense." -*Joyce Lee*

... there were 3 layers of the Grand Canyon ... - *Jasmine Chin*

천지 창조의 역사가 믿음으로 뿐만이 아니라 과학적인 증거로 설명 되어질 수 있음이 기쁩니다. ... - *윤현수*

창세기 1-11장의 말씀이 다시 한번 정리되는 시간이었습니다. -*Chris Choe*

I actually learned more on the trip than my biology. ... and the biblical point of view is the truth. -*Brandon Chung*

... God created all the universe and stars ... The most amazing thing is that he created all those for me. I realized that I am nothing but, yet he made all those for me and loves me more than anything else. ... I put my trust in God. -*Bo Kyung Choi*

하나님의 형상인 나의 모습을 다시 확인 할 수 있어서 좋았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때 얼마나 큰 하나님 나의 든든한 아버지 임을 알고 더욱 감사... -*강윤희*

... 반박 할 수 없는 진리로 판명된 사실이라는 것이 제 마음을 두근거리게 했습니다. -*임미향*

하나님께서 정말 나의 육체적 아버지로 한걸음 더 다가설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 같은 모습으로 세상에 내려와 주시고 사랑과 구원을 주심을 더욱 생

생하게 믿을 수 있었습니다. - 임두진

지난 70년 동안 머리 속에 잠재하고 있던 진화론의 붕괴로 말미암아 혼란이 있지만 반면에 창조주께서 종류대로 창조하신 것에 대한 확신이 있었기에 좋았습니다. - 김치명

창조의 역사가 정말 코 앞에 느끼게 되었습니다. ... 나를 창조하시고 사랑하는 사랑에 더욱 감사하며 앞으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 - 김정분 (ANC 온누리교회)

처음에는 사람들이 동물인 줄 알았는데 ... 내가 틀린 것을 알게 되었다 (심승현, 6th grade) 이 탐사를 오기 전에는 교회를 그냥 이유 없이 다닌 것 같았는데 이제는 이유가 생겼고 하나님에 대한 확신도... (심동현, 7th grade). 하나님의 창조론이 나의 마음에 직접적으로 와 닿았으며 그것이 또한 충격적인 사실이 되었다. ... 큰딸 동현이의 고백에 또한 감동을 받았고 감사 드린다. “엄마 이곳에 오기를 정말 잘했어요. 엄마 나 QT할래요.” ... - 김수정

창세기 사건은 사실이건 아니건 그리 중요한 것이 아니었다. ... 이번 여행은 내가 먼저 창조 사건을 포함 한 창세기 말씀이 실제 사건임이 확실해져서 ... 나 같이 비슷한 신앙 문제나 자녀 문제들을 갖고 있는 주위 분들에게 이 세미나(여행)를 적극 권유하고 싶다. - 서선헌

성경 속의 사건의 증거가 있음을 생각 못 했었습니다. 노아의 홍수가 실제로 눈 앞에 보여질 줄도 몰랐습니다. ... 하나님은 주위에 모든 증거를 남기셨음을, 아니 항상 주위에 있지만 진실을 찾는 이들에게 보여 주실 것을 믿게 되었습니다. ... - 우승국(베델교회)

... 알지 못하는 사이에 진화론적인 생각 ... 하나님의 계획과 반대 되는 것이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 - 강준의(ANC 온누리교회)

● 편집되지 않은 간증은 Home page(www.hisark.com)의 “ACT 간증”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2013년

| | |
|------------|--------------------------------------|
| 9/2-4 | 창조과학탐사 (얼바인 온누리교회), 이재만 |
| 9/5-7 | 창조과학탐사 (주님의 영광교회), 이재만 |
| 9/10-11/12 | 제14기 중부창조과학학교 (시카고 노스필드장로교회), IL |
| 9/11-11/13 | 제15기 중부창조과학학교 (시카고 한미장로교회), IL |
| 9/12 | 남가주주님의교회(이재만) |
| 9/13-12/13 | 시카고 뉴라이프교회 10주 금요 창조과학세미나, (이동용), IL |
| 9/13-19 | 창조과학탐사 (안산동산교회), 이재만 |
| 9/19 | 남가주주님의교회(최우성) |
| 9/21-22 | Liberty University 신학생(이재만), VA |
| 9/23-28 | 창조과학탐사 (일본인), 이재만 |
| 9/26 | 남가주주님의교회(최우성) |
| 9/30-10/3 | 창조과학탐사 (뉴저지 초대 교회), 이재만 |

| | |
|----------|---------------------------|
| 10/3 | 남가주주님의교회(이재만) |
| 10/4-10 | 창조과학탐사 (두란노칼리지), 이재만 |
| 10/6 | 주님의영광교회(최우성), CA |
| 10/13 | 주님의영광교회(이재만), CA |
| 10/14-17 | 창조과학탐사 (남가주주님의교회), 이재만 |
| 10/18-26 | 창조과학탐사 (서울 드림교회), 이재만 |
| 10/20 | 주님의영광교회(최우성), CA |
| 10/26 | ANC 집중세미나 (이재만, 최우성), CA |
| 10/27 | 주님의영광교회(이재만), CA |
| 10/28-31 | 창조과학탐사 (신학생 창조과학 탐사), 이재만 |

| | |
|----------|------------------------------------|
| 11/2 | ANC 집중세미나 (이재만, 최우성), CA |
| 11/3-24 | 한국방문(이재만), 한국 |
| 11/5 | 햇볼트리니티 CEO스쿨(이재만), 한국 |
| 11/9 | JAMA Orange County Conference, 최우성 |
| 11/19-21 | 창조과학탐사 (LA아름다운교회), 최우성 |

● 보다 자세한 일정은 웹페이지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후원

SPONSORSHIP

창조과학 선교회는 초교파 선교단체로서 여러분의 후원으로만 운영됩니다. 창조과학을 통하여 하나님의 진리가 선포되기를 바라는 여러분의 관심과 기도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재정적으로 후원을 하실 분들은 미국 비영리 단체(Nonprofit Organization)로 등록되어 있는 ACT(Association for Creation Truth)로 후원금이 입금되도록 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저희 홈페이지(www.HisArk.com)를 방문하시면 온라인으로 후원이 가능합니다. 보내주신 후원금은 세금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Payable to : ACT



창조과학선교회 Association for Creation Truth

(한국창조과학회 미주지부)

Mailing address | P.O. Box 819, Norwalk, CA 90650
 Office Address | 10529 Leeds St., Norwalk, CA 90650
 Tel. 213-381-1390 www.HisArk.com / hisark@gmail.com